

11월 동향

- 02 | 제49차 집행부회의
04 | 제19차 학원정상화 범대위 회의
09 | 직원협의회 선거관리지침 제정
09 | 제50차 집행부회의
10 | 제14차 학원정상화추진위원회
11 | 제20차 학원정상화 범대위 회의
12 | 2010년 제2차 행정연수위원회
15 | 학원정상화 관련 민주당 순학규 대표 연담
16 | 제51차 집행부회의
- 16 | 제81회 인사위원회
18~20 | 연맹 간부 수련회(위원장외 2명)
23 | 제52차 집행부회의
25 | 3/4분기 노사협의회(직급별 정년차별 금지 및 기능직 정년연장)
25 | 제22차 학원정상화 범대위 회의
26 | 한국노총 경산지부 대표자 회의
29 |故 이태영 총장 15주기 추모식
29 | 제53차 집행부회의(인사제도개선안)

알림터

국립대 학장직선제 폐지 입법예고 [한국대학신문, 2010. 11. 25]
단과대학 학장 직선제, 총장 임명제로 변경 신설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 공고...교수사회 반발 예고
<http://www.unn.net/News/Detail.asp?nsCode=66376>
이제는 '인포컴퍼스' 시대 [한국대학신문, 2010. 11. 24]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학도 변화야...대학가 "한국대학신문 인포컴퍼스 환영"
<http://www.unn.net/News/Detail.asp?nsCode=66319>
QR코드... 대학 입시홍보 트렌드 바꾸다 [한국대학신문, 2010. 11. 18]
스마트폰으로 원하는 대학정보 한눈에

'활용도 무궁무진' 새 트렌드 자리매김
<http://www.unn.net/News/Detail.asp?nsCode=66140>
대교협 대학평가 '구조조정 방식 동의 vs 비용인력 낭비' [한국대학신문, 2010. 11. 25]
"상대평가 보단 기준충족 여부 따지는 게 낫다"
"일부 구조조정 위해 전체가 평가받아야 하나"
<http://www.unn.net/News/Detail.asp?nsCode=66361>
한국대학교육협의회제정 '2010 전국대학 직능단체 현황' 자료집
<http://www.kcue.or.kr/bbs/view.php?gb=pds&page=1&idx=225&kind=&culm=&word=>

특집

연말연시 술자리, 즐겁게 보내는 방법 없을까?

손가락 낚시~ 왕게임, 타이타닉, 병들리기~ 원샷에 또 원샷! 마시다 보면 연말은 너무나 짧아. (홍보부)

빈병 돌리기

술자리에서 제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임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눈앞에 널브러진 빈병을 돌려 주둥이가 가리키는 사람이 술을 마시는 '빈 병 돌리기'이다. 하지만 취기가 오를 때로 몰랐을 경우, 각종 사건·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그해, 당신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 아이폰을 장만한 것임을 잊지 말라. 'Spin That Bottle' 애플리케이션을 무료로 다운, 좋아진 세상 덕분에 화면 위로 병을 돌리는 터치감도 쓸쓸하니 리얼 병 맛 그대로를 느낄 수 있다.

휴대폰 가져와!

술자리에서 유독, 꼭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는 사람들이 있다. 한시도 휴대폰에서 손을 떼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게임
1. 휴대폰 숫자 자판을 머리로 눌러 가장 많은 숫자가 나온 사람이 술 마시기
2. 지금부터 가장 먼저 벨이 울린 사람이 술 마시기
3. 하나의 질문을 정해서 멤버 모두가 문자를 보낸 뒤 답변 가장 늦게 온 사람이 술 마시기 등이 있으니 모두 다 도전-해보시길.

타이타닉

팀(실)장님 이하 막내까지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게임이다.
1. 맥주잔의 2/3 정도만 맥주를 채운 뒤, 소주잔을 띄운다. 2. 멤버 모두가 차례대로 빈 소주잔에 소주를 따른다. 3. 잔이 차올라 맥주 속으로 가라앉게 되면 게임 끝. 침몰시킨 당사자가 원샷을 하여 마무리한다.
소맥의 황금비율을 기가 막히게 잘 맞추는 게 장점이 집안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팀 내 분위기가 메이킹이던 선 선생이 집안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이럴 때 분위기가 도 떨어질 것 같은 순간 조제하기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게임.

딸기게임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한번 보자 했던 동로벤들,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게임이다.
1. 아이엠 그라운드 게임의 네 박자를 기본으로 한 손동작을 한다. 2. 첫 번째 사람이 4박자 중 앞의 세 박자는 쉬고 마지막에 "딸기"를 외친 뒤 그 다음 사람은 두 박자 쉬고 "딸기" "딸기"를 외친다. 3. 순서대로 "딸기"를 세번, 네 번을 외친 뒤에 다시 반복한다. 즉, 5번째 사람은 딸기 네 번을 외친 뒤, 앞의 세 박자를 쉬고 다시 딸기를 외쳐야 하는데 점점 스피드를 빨리 해야 재미있다.
딸기가 좋다. 정말이지 수천 번을 반복해도 질리지 않는 단어 "딸기" 덕분에 간단에 만나는 사람들과의 술자리도 어색하지 않고 "술" 정도 발랄한 분위기가 유지된다.

더 게임 오브 데스

선배 따라간 술자리에 함께했던 사람들 A, B, C, D, E(희미하게 실루엣만 기억이 난다)와 한번쯤 해봤을 법한 게임이다.

1. "신난다. 재미난다. 더 게임 오브 데스" 때명으로 시작한다.
2. 노래가 끝나면 멤버 모두가 손가락으로 아무나 가리키고 술래(A)는 멤버의 수를 맥시멈으로 일정한 숫자(예를 들어 3)를 외친다. 3. A→B, B→C, C→E를 가리켰다면 술래가 말한 숫자 3의 단계를 거쳐 E가 당함! 원샷을 하면 된다.

눈 마주치며 할 얘기 없는 사람들과의 술자리, 간에는 어색하나 술이 마시고 싶을 때 어느 날 문득 '오늘은 아주 마시고 죽자'는 심정이 들 때 매우 유용한 게임이다.

손가락 낚시

평소 자신의 두뇌상태에 자신이 없었던다면 '배스킨라빈스 31' '3.6.9' '구구단을 외자' 등의 게임은 스스로 지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웃기려거나 분위기가 띄우려는 의도가 아닌, 정말로 못해서 매번 걸리는 것을 사람들이 눈치채는 순간 당신의 패치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게 된다. 만일 앞서 언급한 게임이 대체로 모자랐을 경우, 너무 오래되고 익숙한 것임을 상사시켜 재미 게임인 순하기론(지존이다)을 제안. "이번 주에 보냈한 사람 집어"와 같은 낚시성 질문으로 모두를 낚는다.

잔 치기

1. "잔 치기 잔 치기 찌똥똥, 잔 치기 잔 치기 찌똥똥" 역시 때명으로 시작, 최대한 발랄하게 부른다. 2. 술래가 잔을 바닥에 치면 오른쪽으로 돌며 순서대로 바닥을 친다. 3. 한 번 치면 오른쪽으로 돌며, 두 번 치면 왼쪽으로 돌며, 세 번 치면 역 방향으로 도는 것으로 스피드가 빨라질수록 흥을 더한다.
탁자에 잔을 칠 때마다 스트레소가 팍팍 풀린다. 두세 번 만난 어색한 사이, 오고 가는 대화가 없을 시 한 어색한 잔 치는 소리가 메워준다.

그대 이름은 흑장미

아무리 내가 좋아 마시는 술이라지만, 몸에 좋지 않음 뿐더러 모두 살로 고스란히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흡사자 또는 흑장미가 되어줄 경우, 그 대가는 톡톡히 받는 것이 좋겠다. 가장 좋은 방법은 현금을 받는 것으로 일단 최대 1만원 정도만 술자리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고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다. 간혹 "저 진짜, 팀장님 잔이어서 마시는 거예요" 등의 멘트 하로 한 잔이 더 양할 수도 있으니 참할 것 괜히 잘 추차도 못하는 술 추개 하고 부러지도 못하는 노래 악으로 사기는 것은 오히려 흑장미 기사도 정신에 어긋난다.

12월의 생일자

12.01	손동우	대외협력팀	10.26
12.01	최준덕	관재팀	10.26
12.01	최효정	교무팀	
12.02	권용복	정보통신운영팀	
12.04	유진호	정보화개발팀	10.29
12.07	유순자	장애헌생지원팀	11.02
12.08	윤진영	국제교류팀	
12.18	심경숙	장학복지팀	11.13
12.21	이상남	교육대학원	11.16
12.21	정광국	시설팀	11.16
12.21	하정란	학술운영관리팀	11.16
12.22	이경자	생명환경대학	
12.24	김호영	평가분석팀	
12.24	김진영	정보통신대	
12.24	이건희	도서정보팀	11.19
12.26	정환유	생명환경대학	
12.29	윤홍규	도서정보팀	
12.30	김원환	자산관리팀	11.25
12.31	최인희	비호생활관	11.26

사문실에서

커피믹스 시키신 분?



> 맥스 모카골드 마일드

커피(맥스 모카골드 마일드)+백설탕+식물성크림

부드러운 맛이 강하고 씹을만한 맛은 달하다. 커피 특유의 향이랄지 식감이 탁월한 것 없지만 적당히 진하고 달달해 어느 사람의 입안에도 잘 맞을 듯 마시고 난 뒤 입안에 남는 텁텁함이 덜해 깔끔하게 커피를 즐길 수 있다.

추천합니다! 점심을 먹고 난 뒤, 꼭 입가심 커피 한잔을 마셔야 직성이 풀리는 원장님.

> 테이스터스 초이스 슈퍼리모

커피 원두 100%

깊이 있는 맛과 신선함이 느껴진다. 평소 진하고 쓴맛을 좋아한다면 2% 부족하겠지만 마시고 난 뒤, 개운함이나 깔끔함은 꽤 만족스럽다. 입안에 오래도록 머무는 커피의 향이 좋아 구수한 아메리카노를 즐겨 마신다면 그야말로 '강추'.

추천합니다! 커피믹스에서 커피만 골라내느라 난시 생긴, 블랙커피 취향의 팀장님.



> 맥스 아라비카 100 부드러운 블랙믹스

커피(맥스 아라비카 100)+결정당

설탕 대신 사용한 결정당은 당도가 높아서 시고 쓰고 달기도 한 커피의 복합적인 맛이 잘 잡힌다. 아라비카 커피 특유의 신맛이랄지 향미도 느껴지는 듯, 그 내린 원두커피의 경지는 아니지만 신선한 커피 향을 즐기며 마실 수 있다.

추천합니다! 오후만 되면 저절로 눈 감고 당 떨어지는 바로 나!

> 맥스 카페 캐페라떼

커피(맥스 이탈리아인 로스트) + 백설탕 + 식물성크림 + 혼합분유

일단 첫 모습에서부터 느껴지는 풍부한 우유 맛과 부드러운맛 고소한 맛이 포인트 단맛도 강하지만 커피 고유의 향이 더해져 부담스럽진 않다. 최적의 시간과 온도로 볶았다는 원두의 향미는 뒤쪽에 남는 씹을 함으로 전해진다.

추천합니다! 커피전문점에서 주문할 때, "난 달고 맛있는 거"라고 말하는 계장님.

